

생활속의 오계(五戒) 실천 — '94를 돌아보다

파계로 얼룩진 한 해... '살맛' 잃게 해
우리터전 되살리기 운동 그나마 다행



◇지난 한해동안 생명공양운동·환경운동 등이 다채롭게 전개됐다. 사진은 노인공경 캠페인.

갑술년이 다 저물었다.

지난 한해도 우리 사회는 어수선했다. 사회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개혁의 열풍을 뜨겁게 앗았던 한 해였다. 성철 스님의 입적이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밝은 갑술년에 일어났던 불교계의 변화는 한국 불교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구종권의 퇴락과 개혁의 골결 그리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어 종단의 안정을 다져나가는 노력으로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다.

불교계의 이같은 변화 속에 사회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한 해를 이어왔다. 인륜의 추락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 박한상의 부모 살해, 자존과의 살인공작, 세금을 도둑질한 공무원들 살충된 책임의식의 결과물인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통쾌하게 한 선행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평생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증한 장내순 할머니, 자신의 신체를 이웃을 위해 내놓은 봉사자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과 실천 행사들이 우리 사는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삶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5계를 중심으로 점검해본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생명공양, 환경운동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인간적 삶의 모습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지난 한해 동안 펼쳐진 각종 단체의 환경운동은 불살생계를 지켜가는 사회적인

노력이었다. 새강살리기 운동, 그린스 카우트 운동, 생명공양운동 등의 성과는 담당 가지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깨끗한 환경 가꾸기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 운동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전개될 것이다.

자존과의 살인행각, 온보현의 물간적 살인, 박한상의 반인륜적 부모 살해 등은 인간을 더이상 인간이 지 못하게 하는 열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같은 생명경시 풍조는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려는 환경운동과 대조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류이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허락 없이 기를 물한모금을 마셔도 죄가 된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지난 한해동안 많은 보시행이 펼쳐졌다. 장내순 할머니의 12억희사, 장지원 경 보상의 장기기증, 갈로심장회의 심장병 무료수술과 안구기증운동, 르완다 난민을 돕기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 등은 인류행복의 근원이 바로 보시행에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각종 복지시설이 연이어 문을 열었고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폭넓게 펼쳐져 공동체 사회의 행복 추구를 위한 자비행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전국에서 드러난 세금비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훔치는 몰염치한 행위로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공무원이 도둑으로 변하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허탈감을 자아낸 세금도

둑은 불부도계를 어진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이다. 정부차원의 세밀한 감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도둑에 대한 죄값은 계속해서 물결 될 것이다.

◇삿된 행을 하지 말라

음행은 개인과 사회를 증연는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에도 퇴폐문화는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뿌리채 뽑아내야 할 퇴폐문화의 근원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국민의 의식에 있다는 지적도 이제는 일반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 영화, 음란비디오 등이 계속 쏟아져 나와 사회 기강을 문란시키고 청소년들까지 악몽에 중독되고 음란 영화 비디오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는 기사는 일년내내 신문에 오르내렸다.

◇건강사회의 실현

불교계에서는 불살생계를 지키려는 첫째 노력으로 가족법회의 확산을 보여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도심 생활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부법회, 가족법회의 확산은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선종을 일으켰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의 확대, 또한 높이진 국민회의식의 단면을 보여준 계기로 꼽히고 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죄값을 물게한다는 가르침도 지난 한해동안 여실히 입증됐다. 착한 삶, 청결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출발한 맑고 향기롭게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94년. 사진은 아현동 가스폭발 현장.

살아가기 운동은 지난 한해동안의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신뢰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사고가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였다.

기업의 건설행위는 기업이온 추구에 앞서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이 무시된 공사의 결과로 다리가 무너졌고 가스관이 폭발했다. 개인과 사회의 믿음이란 연결 고리를 끊어버린 처참한 사고들. 그 현장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다.

어떤 경우에서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대형사고들이었다.

◇술 마시지 말라

불을 주게 하는 우리의 먹거리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음주와 음식문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술 판매 경쟁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을 살리자는 국민적 노력인 신도밭이 운동의 확산은 '우리'를 고집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음식문화 창조를 위한 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국민들이 마신 술의 총량은 2백60만216천3백96리 5ml 자리 맥주병으로 52억1천2백79만병이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40만병이 늘어난 것으로 1인당 1백74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과열된 주류광고 경쟁과 혼란한 사회가 국민들을 취하게 한 것이다.

나의 수행일기

우 경 화
 <스포츠 TV 사업국장>

이억중생을 이상으로 삼는 공단(公團) 무량회(無量會)의 사원을 울바로 행하지 못하는 불자가 나의 수행 일기를 쓰러니 어찌지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나와 부처님의 인연은 3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내가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1학년 시절, 당시 학교 내규상 1학년은 주말의 출시 진해시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마산으로 외출할 기회를 가진다는 단 한가지 생각에서 사관생도의 신분으로 종교생활을 불교로 택하게 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생도는 학교 구내에 교회가 있어서 학교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불교는 당시 마산에 있는 포교당에서 일요일을 가졌다. 법회를 보고나면 오후에는 마산일대에 외출이 가능했기에...

고 물으면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스님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 10여분 지체된 후 일행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는데 전방 50여m에서 갑자기 폭음이 들리면서 아우성소리가 났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큰 나무뒤에 몸을 감추었다. 한 30분쯤 후 미군 헌병이 들어오고 엠블린스가 도착했다. 일순간 아우성소리가 된 장소를 가서 알아보니 외출한 미군헌병들이 풀라를 마시면서 휴식하는 사이 베트남들이 슈루탄을 던진 후 도망가버린 것이다. 미군헌병 3명이 폭사하고 2명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식당을 구경하고 뛰고 다 돌아와서 그대로 사이공항 "C"부두에 계류 중인 함정에 들어왔다. 꼼꼼히 생각해보니 10분만 더 일찍 식당을 구경하러 갔더라면 들어갔더라면 우리도 목이 마르던 차였으므로 틀림없이 풀라를 마시다가 미군들이 알아서 그 장소에서 베트남들에게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오싹오싹 소름이 끼친다. 스님과 같이 사진찍고 늦게 잠정한 것이 천만다행으로 이것도

'일체 유심조' 마음에 새기며 매일 참회

국민학교때는 눈감사할 열이 먹는 재미로 동네 학우들과 함께 대구 삼덕교회에 다녀보기도 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처음 포교당의 정하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을때는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께 왜 이렇게 절을 많이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지 빨리 법회가 끝나고 우리 사관생도들을 위해 보살님들이 준비해 주신 특별공양이나 맛있게 먹고 마산 시내 외출에만 온 신경을 쓰던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절로 나곤 한다.

사관학교 4년동안 나름대로 주말이고 휴가철이면 사찰을 열심히 찾다던 인연으로 중견장교시절에는 해군불교참교회(OBU) 총무 일을 보기도 했다. 당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오죽원 스님의 감사패까지 받고보니 해군생활에서 나의 불심은 조금이나마 초발심을 일으킨 모양이다.

군생활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67년 해군소위때 월남 백구부대에 파병되어 첫 외출을 했던 때이다. 당시 나는 사병 2명과 함께 사이공시(지금은 호찌민시) 식물원에 갔다.

식물원에 들어가려 할때 마침 붉은 승려복을 입은 월남 스님 한 분이 들어오시기에 우리는 사이공시내 사찰을 구경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의 가피력이 나를 돌아주시 큰 은혜로 항상 생각한다.

나의 잘못에는 처벌이 시켜달라고 나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매사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보람된 직장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3년전 뜻있는 불자 12명이 회사내에 무량회(현재 150명)를 구성했다. 직장의 발전을 위하여 보살의 길을 간다는 서원이라 여기에서 지역도 없는 내가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주말 금요일 퇴근후 법회를 통하여 지혜와 공덕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되고 마음의 폭은 배를 씻을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족한 나에게도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에서는 재가불심을 모시지도 못한 채, 아내가 매일 저녁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내 스스로는 남을 위해 특별한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해로운 짓은 안해 하지 하는 여린 마음만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 나의 자화상이 아닐런지.

화엄경의 아미타금계찬품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계승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인생살이의 양약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허부를 어떻게 보냈는지, 부처님전에 일드려 깊이 참회해 본다.

억겁의 어둠을 몰아낸 빛

생활속의 불교 ⑪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금은방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끼리 무쇠전에 모이고, 남마는 남마끼리 남마전에 모인다.

과거의 인(因)으로 해서 현재의 과(果)가 맺어지는데, 이치가 그와 같아서 병을 앓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며 고통받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한생각 일으키는 데 따라 오징어 먹물의 생명의 씨가 형성되기도 하고, 한생각 일으키는 데 따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거나 자유인이 되기도 한다.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이는 금처럼, 어떤 이는 남마처럼 그 과보를 받는다. 금이나, 남마나 하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골라 잡는 것이다.

수억년 전 동안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악업·선업이 본래는 공(空)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어둠에 묻혀 있던 캄캄한 동굴 속일지라도 어느 때 한 줄기 빛이 새어 들면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둠은 업이요 빛은 한생각이다.

“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

전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동광자동차공업사 | 전화: (02) 464-1472
 464-0882
 성동구 화양동 151의 12 | 팩스: (02) 469-1472

법학 · 생활학 · 연극학 · 기계학